



제 156회 원자력 안전메시지

건강한 원자력 안전문화의 특징 I

제1편 : 안전에 대한 개인의 책무

출처 : INPO 12-012

| 도입

기존 산업계의 “리더십 중심” 안전문화와
규제기관의 “규제 관점” 안전문화가
상이하야 이를 적용해야 하는 현장에서는
혼란이 있었다.

INPO 12-012 ‘**건강한 원자력
안전문화의 특징**’에서는 이를 아우르는
안전문화의 특징과 그에 따른 요소들이
정리 되어 있다.



안전문화 특징은 “개인, 관리자, 관리체계” 세 범주로 나뉘며

금번 안전메시지에서는 그 첫번째 범주인

안전에 대한 개인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

| 안전문화 특징의 범주



| 개인의 책무

**“안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
원자력 안전에 있어 최우선”** 한다는 점을
반드시 명심해야 한다.



| 개인의 책무



기 준

모든 종사자는 **절차 및 지침**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



주인의식

모든 종사자는 **원자력 안전이 최우선**이 되도록 **주인의식**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**책임을 다해야** 함



팀워크

개인-개인, 개인-부서 및 부서-부서간에는 **원활한 의사소통**과 **적극적인 업무협조**가 이루어져야 함

| 의문을 갖는 태도



종사자는 **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함**



조건, 가정(Assumption), 비정상 상황, 실수 또는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**의문을 갖는 태도를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**

| 의문을 갖는 태도

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가능성 인식



종사자는 기기,방사선을 포함한
전 분야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
있음을 인식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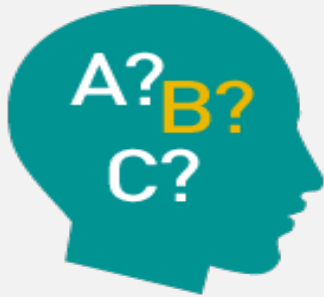
불확실성에 대한 의문제기



- 종사자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
작업을 중지해야 함
- 작업수행 전 위험에 따른 충분한 분석과
위험 방지 조치를 수행해야 함

| 의문을 갖는 태도

가정(Assumption)에 대한 의문제기



종사자는 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
판단의 오류를 인지할 경우 이에 대한
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

자만의 방지



종사자는 성공적인 결과가 예상되는
상황에서도 발생 가능한 실수, 잠재적 문제,
그리고 내재된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
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
| 안전 의사소통

의사소통은

안전을 중심으로

이루어져야 한다.



| 안전 의사소통



의사소통의 생활화

종사자는 안전 의사소통이
일상 업무 중에 생활화 되도록 해야 함

중요 정보의 의사결정 반영

종사자는 운전을 비롯한
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이
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
확인해야 함



| 의문을 갖는 태도



원자력 안전의 목표

종사자는 조직의 최우선 가치 목표인
원자력 안전을 강조하여야 함

정보의 자연스런 흐름

종사자는 조직 내 또는 규제기관과도
수직 · 수평적 또는 개방적인
의사소통을 수행해야 함




| 결언

원자력 안전은 **종사자 모두의 책임**이다.



원자력 안전문화



원자력산업계
모든 종사자

“안전제일” 원칙은
종사자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.